| 현불 논단 |

통일 해법, '중도·화쟁'에 있다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3.1운동 100주년 희소식 기대한
하노이 2차 북미회담 결렬로 끝나
그래도 희망을… 성찰의 계기 돼야

정·반·합으로 발전한다는 '변증법'
통일 위한 진테제 도출 노력 있었나
현실적으로 통일은 긴장·갈등 과정
통일문화 구축위한 노력 이어져야

양자택일 극복할 때 역사는 발전했다
슴 위한 에너지, 화쟁과 중도에 담겨

하노이에서 열린 비핵화 북미회담의 결렬을 보면서 실망과 황망함이 겹친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물꼬가 될 희소식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새삼 우리의 못남에 서글픔이 몰려온다. 외세에 의해 분단되고 지금도 분단 극복의 탈출구를 외세에 기댈 수밖에 없으니 이를 어쩌랴.

그래도 희망을 갖고 싶다. 한반도의 분단 극복에 대해 치열하게 고뇌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사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Hegel)은 변증법을 통해 세계는 나선형으로 진보된다고 보았다. 변증법은 정(正)·반(反)·합(合)의 논리이다. 헤겔에 따르면 변증법은 진리 탐구만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에도 적용한다. 어떤 사회가 있으면 그것을 부정하는 다른 형태의 사회가 제안되고, 결국에는 양자의 모순을 극복하는 합(合)의 형태로서 진테제(synthesis)로서의 이상 사회가 제안된다.

변증법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자기수정과 열린 마음, 그리고 도전 정신이 절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단극복과 통일 문제에 진테제를 도출하기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이 있었던가? 지금도 한국사회에서는 정과 반이 극심하게 대립되는 남남갈등이 극심하고 아직 진테제를 도출하지 못하고 서로를 탓하고 미워하고 있다.

오랫동안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명제였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통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세대도 늘어 가고 있다. 통일은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통일은 상이한 이념과 생활양식을 가진 사람이 뒤섞이는 과정이고, 구성원들의 경제적 기반이 재편되고 이익이 충돌되는 과정이고, 정치권력의 통합으로 권력의 속성상 어느 영역보다도 많은 긴장이 유발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통일이라는 사건은 한반도의 민족에게 많은 갈등상황과 긴장을 불러올 것이다. 통일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개인 존재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분단 이후 70여 년 동안 민족 스스로의 자기통제감을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일을 위한 자발적, 창조적 에너지의 창출 능력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통일을 선도하고 이끌 수 있는 정신적 자산이 있는 것인가? 지금까지 분단 극복과 통일 문제는 정치와 통치 행위로서 존재해 왔다. 그래서 남북화해와 통일 문제는 중요한 정쟁의 단골 메뉴였다.

반면 밑으로부터의 통일문화 창조의 노력은 매우 빈약하였다. 통일문화는 민족 화해의 배를 띠우는 강이다. 여기에 남북문제의 가치론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나온다. 통일은 물리적 고정태가 아니라 통합의 과정이라는 역동적인 체계이다. 남북한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의 문제 등 통일한국의 좌표와 과제에 대한 가치론적 접근은 통일문화 창조의 토대이다.

합(合)으로 향하는 헤겔 변증법의 진테제는 한국불교의 중요한 자산인 화쟁사상 안에 이미 나타나 있다. 우리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한쪽을 추구하면 다른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류사의 위대한 업적은 양자택일을 극복할 때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원효의 화쟁사상이고 이것은 붓다의 중도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화쟁사상은 한국 불교의 위기 시에 정혜쌍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남북화해와 통일의 창조적 에너지를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붓다의 중도사상과 화쟁사상에서 실천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만큼 한국불교의 책무가 크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공회전을 줄여주세요

따스한 봄이 오면 차창을 열고 봄바람을 한껏 들이키면서 길을 달리고 싶다. 훈훈한 봄바람에 꽃향기가 묻어온다면 얼마나 향긋할까? 그러나 마음까지 간질이는 이 기분 좋은 상상을 단숨에 깨어버리는 것이 있다. 황사와 초미세먼지다. 봄만 되면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와 하루에도 몇 번씩 초미세먼지 수치가 우리들을 위협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3월 5일 오전 초미세먼지 수치가 매우 나쁨 기준치의 2배를 넘는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어린이, 고령층들은 집안에 갇히다시피 한다.

요즘 같은 때, 도심을 달리다 차 안의 답답한 공기를 바꿔보려고 창문을 열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창문을 열면 차 안의 초미세먼지는 약 130배, 미세먼지는 약 90배까지 농도가 올라가 버린다. 최근 교통안전공단과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자동차 생태 변경에 따른 미세먼지 유입 측정' 이라는 실험결과다. 이 결과는 지극히 상식적이라고 믿고 있던 행동이 이제는 바보스럽고 위험한 행동이 되어버렸다는 걸 보여 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도심의 운전자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황사나 초미세먼지의 원인은 중국의 영향도 있지만 도심의 경우엔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자동차 매연이 주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화력발전소와 경유차를 줄여나가는 정책을 펴기도 하지만 이런 정책은 단시일 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회전 줄이기다. 추운 날에 히터를 켜기 위해, 혹은 신호 대기 중일 때, 우리는 누구나 공회전을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쌀쌀한 날씨에 엔진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려고 아침마다 출발 전 공회전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회전은 에너지 낭비뿐 아니라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다. 자동차 공회전 시에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온도가 낮아서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정화장치의 효율을 10% 이하로 떨어뜨려서 주행 시와 비교하면 일산화탄소는 6.5배, 탄화수소는 2.5배로 더 많이 배출된다. 언제 어디서든 공회전을 삼가야겠지만 특히 지하 주차장같이 공기 순환이 잘 안 되는 곳에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 그렇게 배출된 매연에 노출되는 것은 우리이며, 그 피해자들도 우리이기 때문이다.

공회전 줄이기 외에도 초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운전습관들이 있다. 경제속도(60~80km) 준수하기,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하지 않기, 신호 대기 시 기어 중립하기, 관성 주행하기 등이 그것이다. 그 중에서도 공회전을 줄이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인다면 이산화탄소 배출국 7위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스크 없이 외출하는 것은 이제 위험한 행동이 되어 버렸다. 가끔은 이대로 가다가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미래의 지구인처럼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다. 물을 사 먹는 것처럼, 공기를 사 먹는 시대가 오기 전에 공회전을 줄이는 작은 실천이라도 꼭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봄날이다.

社說

종단 관리감독 체계성 강화해야

최근 불교여성개발원의 기금 관리 행태가 세간의 질타를 받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불교여성광장 건립기금과 조계종총본산성역화불사 지정기탁금 등을 부설법인인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 계좌로 관리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불교여성개발원과 산하 사단법인인 지혜로운여성은 동일시 되다시피 한 운영을 해왔다. 이로 인해 엄연히 분리되는 단체, 특히 설립 주체단체와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임에도 상하의 구분없이 운영되어 왔다. 불교여성개발원장에 대한 미임명 사태로 불거진 개발원장 공석과 지혜로운여성 만의 단독 이사장 선출로 두 단체의 행보는 갈리고 있다.

그동안 많은 불교계 포교, 신도단체들은 세금 혜택과 기금 안정성을 목적으로 사단법인을 만들어 기금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엄연히 두 단체는 다른 단체이며, 최소한의 절차는 지켜야 한다.

포교원 측은 불교여성개발원과 지혜로운여성이 사태발생 전에는 원만한 관계였고, 그런 관계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종무지도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포교원도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신뢰와 믿음은 제도와 법에 의한 최소한의 기준이 지켜진 뒤에 쌓아 올려야 한다.

이번 사건은 향후 조계종의 각 단체와 산하 법인간의 관계, 그리고 지도감독권이 있는 종단의 역할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이미 발생한 문제는 수습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종단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다행히 종단 측에서 포교단체와 산하 법인의 관리에 대한 종법령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니 환영할 일이다. 종단의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포교단체의 신뢰성 회복이 이어지길 바란다.

2019년 출가·열반재일에 부쳐

사월 초파일로 대표되는 부처님오신 날을 비롯해 출가재일, 성도재일, 열반재일을 불자들은 '불교 4대명절' 이라고 말한다. 특히 출가재일(음력 2월 8일)과 열반재일(음력 2월 15일)은 시기가 1주일 사이여서 정진 주간을 선포하고 수행을 독려한다.

올해에도 적지 않은 사찰들이 수행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계사의 경우 3월 7일 열린 초하루 법회에서 승보공양 헌공의식을 봉행하고 출가열반정진 주간을 선포했다.

조계사는 3월 14~21일 오전 10시 법회를 열고 경전 독송, 참선, 108참회를 진행한다. 또한 오후에는 요가강좌에 이어 108염주 만들며 108배하기, 참선 등의 프로그램이 이뤄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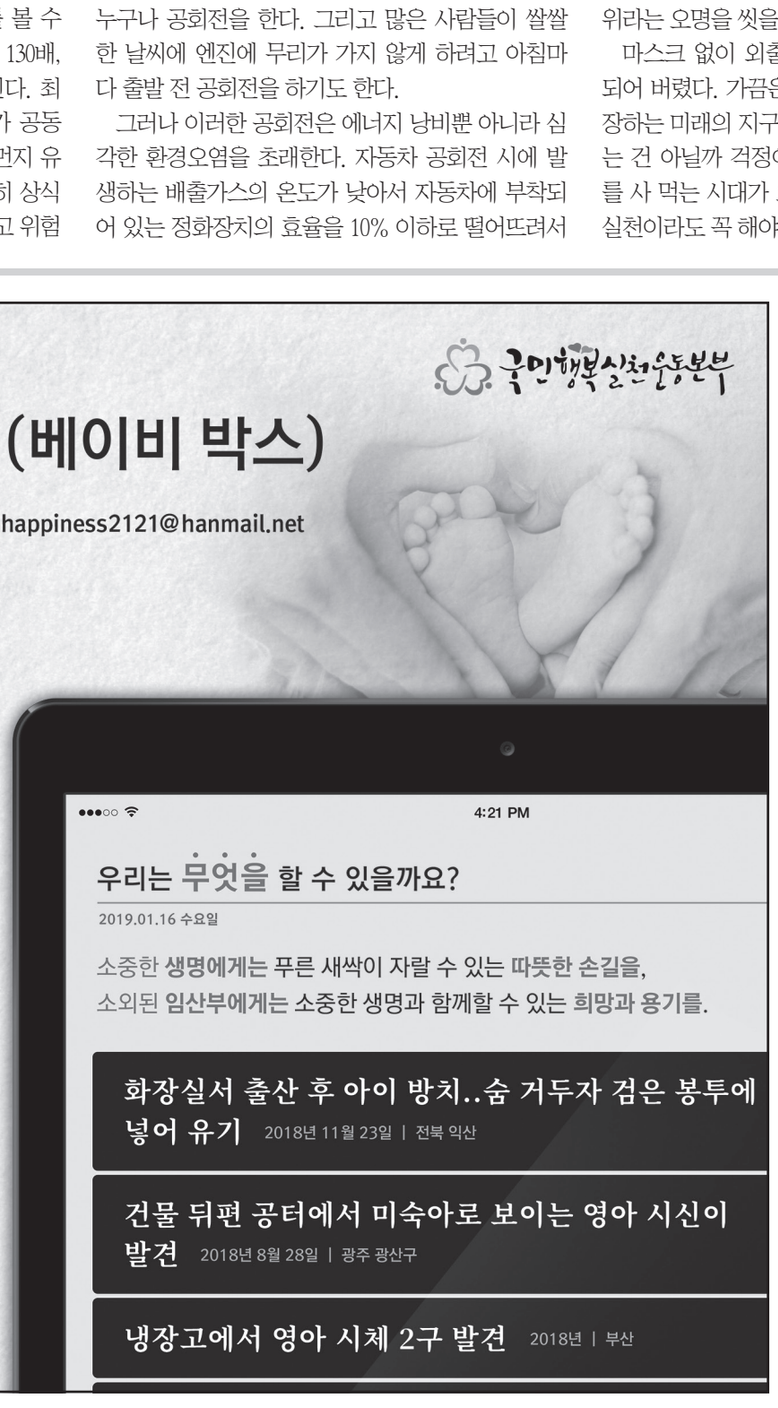
통도사의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통도사는 출가·열반재일을 맞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정진기도를 실시한다. 또한 출가·열반재일을 맞아 삼보일배 수행정진도 진행된다고 한다.

현재 불교계는 부처님오신날을 가장 큰 명절로 생각한다. 반면, 싯다르타 태자가 무상함을 인지하고 출가하고, 정각을 이룬 후 열반한 날을 크게 기리지는 않는 분위기다. 주요 본사 중에서 출가열반재일에 별 다른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사찰도 적지 않았다.

깨달음을 발심해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싯다르타 태자의 원력, 그리고 성도와 전법 끝에 열반에 이르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여정은 부처님의 출생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견성성불과 자리이타의 모든 것을 보이신 부처님처럼 우리 불자들도 출가열반재일을 맞아 수행해보자. 일선 사찰들 역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405-9402 영주지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구지사 : (053)768-8008 전북지사 : (063)910-89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영·유아 행복드림 사업
국민행복실천운동본부
라이프 가든(베이비 박스)
후원문의 051)664-7300 | happiness2121@hanmail.net



영·유아 유기 관련
사회적 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 및
영·유아 생명권 보호

1. 영·유아 유기 예방 시스템
2. 영·유아 생명권 보호: 라이프 가든
3. 영·유아 유기 관련 연구

(사)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는 홍법사, 동의대학교와 함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바른 뜻을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